

읽기 쉬운 신약성경

Language: 한국어 (Korean)

Provided by: Bible League International.

Copyright and Permission to Copy

Taken from the Korean: Easy-to-Read Version © 2003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.

PDF generated on 2017-08-25 from source files dated 2017-08-25.

9bac292a-0755-530b-b49d-81aef79b3112

ISBN: 978-1-5313-1313-5

디모데후서

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. 나는,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널리 알리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. ² 이 편지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다.

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.

감사와 격려

³ 나는 밤이나 낮이나 기도할 때마다,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. 나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. ⁴ 우리가 헤어질 때 그대가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기에, 나는 그대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. 그대를 만나면 내 기쁨이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이다. ⁵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.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믿음이다. 그리고 지금은 그 믿음이 그대에게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. ⁶ 그런 까닭에 나는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에 부채질을 하여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라고 그대를 일깨운다. 그 선물은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었을* 때에 그대가 받은 것이다. 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수줍음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.

⁸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. 그리고 그분을 위해 일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몸이 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.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라. 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려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. 그것은 우리가 이룩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, 그분의 계획과 은혜 때문이었다. 이 은혜는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. ¹⁰ 그런데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.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없애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셨다. 그렇다! 예수께서는 기쁜 소식을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의 길을 보여 주셨다. ¹¹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. ¹² 또 그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,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.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을 알고, 또 내가 그분께 맡긴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지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. ¹³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, 내게서 들은 건전한 교훈을 삶의 원칙으로 굳게 지켜라. ¹⁴ 그리고 그대에게 맡겨진 보물 곧 기쁜 소식을 잘 지켜라.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라.

¹⁵ 그대도 알다시피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비롯하여 아시아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렸다. ¹⁶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안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빈다. 그는 여러 번 나를 위로해 주었고,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. ¹⁷ 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애써 찾아다닌 끝에 나를 만날 수 있었다. ¹⁸ 내가 예베소에 있을 때에 그가 여러 면에서 얼마나 나를 도와주었는지 그대는 잘 알고 있다. 주께서 그날에 오네시보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.

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인

2 내 아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굳세어져라. ²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나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웠다. 그대가 듣고 배운 것을 믿음직스러운

* 1:6 손을 얹었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한 복을 빌어 줄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시.

사람들에게 말겨라. 그러면 그들도 그대에게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. ³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져라. ⁴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 군대에 들어간 사람은 군대 밖의 일상사에 얽매이지 않는다. 군인의 목적은 자기를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. ⁵ 또 운동 선수로서 운동 경기에 참가한 사람은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월계관을 얻을 수 없다. ⁶ 열심히 일한 농부는 마땅히 추수한 곡식에서 자기 몫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한다. ⁷ 그대는 내 말을 잘 새겨들여라.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.

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.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며,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다. 이것이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의 핵심이다. ⁹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. 심지어 죄인처럼 이렇게 사슬에 묶이기까지 하였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슬에 묶여 있지 않는다. ¹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있다. 그것은,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영광도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.

¹¹ 다음과 같은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.

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

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,

¹² 우리가 참고 견디면

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,

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,

그분 또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.

¹³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여도

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.

그분은 자신을 모른다고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.

인정받은 일꾼

¹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어라. 그들이 말다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경고하여라. 말다툼은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으며, 오직 듣는 이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다. ¹⁵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여라. ¹⁶ 속된 허튼소리를 피하여라. 그런 것을 좋아하여 거기에 빠진 사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. ¹⁷ 그들이 하는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.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. ¹⁸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났다. 그들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면서,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. ¹⁹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놓으신 튼튼한 기초[†]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. 그 기초에는 “주께서는 당신께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.”[‡]는 말씀과, “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라.”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.

²⁰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,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.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들은 천하게 쓰인다. ²¹ 내가 앞서 말한 악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다.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귀하게 쓰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이 될 것이다.

²² 그대는 젊은이의 욕정을 피하여라. 순결한 마음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더불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라. ²³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을 피하여라. 그대도 알다시피 논쟁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. ²⁴ 주님의 증은 다투어서는 안 된다.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,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, 참음성이 있어야 한다. ²⁵ 그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

[†] 2:19 기초 집의 무개를 받치는 맨 밑바닥.

[‡] 2:19 주께서는…아신다 민 16:5.

겸손하게 가르쳐야 한다.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지도 모른다.²⁶ 그러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악마의 올가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. 그들은 악마에게 붙들려서 악마가 원하는 일을 해 오던 사람들이다.

마지막 날

3 그대는 이것을 알아 두어라.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닥칠 것이다.²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, 뽀내고 거만하며, 남을 해치고,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, 고마워할 줄 모르고, 거룩하지 못하며,³ 사랑할 줄도 용서할 줄도 모르고, 남을 욕하고, 절제를 모르며, 잔인하고, 선한 것을 미워하며,⁴ 배신하고, 경솔하고, 교만하고,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.⁵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나,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.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.⁶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. 이런 여자들은 죄에 짓눌려 있고, 온갖 악한 욕망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여자들이다.⁷ 이 여자들은 늘 듣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다.⁸ 얌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, 이 사람들도 진리를 배반할 것이다. 그들의 정신은 썩었으며, 그들의 믿음은 겉치레일 뿐이다.⁹ 그러나 그들은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. 얌네와 암브레가 그랬듯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.

끝으로 일러두는 말

¹⁰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, 나의 목표와 믿음, 나의 오래 참음과 사랑, 나의 인내를 잘 보아 왔다.¹¹ 또한 내가 받은 박해와 고통과,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. 그곳에서 내가 어떤 끔찍한 박해를 받고도 다 참아 내었는지 알고 있다.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.¹²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당할 것이다.¹³ 그러나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하면서 점점 더 사악하게 될 것이다.

¹⁴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 굳게 믿고 있는 가르침들을 계속하여 지켜라. 그대는 그 가르침들이 진리임을 알고 있다.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에게 가르쳐 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.¹⁵ 그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잘 익혀 왔다.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다.¹⁶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으로서,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꾸짖고 허물을 바로잡아 주고,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이다.¹⁷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.

4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, 그분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.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하게 명령한다.²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라.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.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꾸짖고 격려하되, 참을성 있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르쳐라.³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참고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.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맞는 선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다. 그 선생들에게서 그들의 근질거리는 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할 것이다.⁴ 그들은 진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, 꾸며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다.⁵ 그러나 그대는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, 고난을 견디어 내며,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,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하여라.

⁶ 나는 이미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제물[¶]로 바쳐질 때가 되었다.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왔다.⁷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, 달려야 할 경주를 다 마쳤고, 믿음을 지켰다.⁸ 이제는 의의

[¶] 4:6 부어 드리는 제물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께 제사 지낼 때에, 제물 위에 물이나 포도주를 부어서, 부어 드리는 제물로 삼았다.

월계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. 그날이 오면, 공정한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내게 씌워 주실 것이다.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려 온 모든 사람에게도 씌워 주실 것이다.

개인적인 부탁

⁹그대는 되도록 빨리 내게로 오너라. ¹⁰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.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,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. ¹¹내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다.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. 그가 내 일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. ¹²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.

¹³그대가 올 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외투를 가져오고,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[§]에 쓴 것들을 가지고 오너라.

¹⁴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몹시 괴롭혔다. 주께서 그가 내게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. ¹⁵그대도 알렉산더를 조심하여라. 그는 우리의 가르침에 몹시 반대하였다.

¹⁶내가 처음 재판정에 섰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.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.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죄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. ¹⁷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. 그것은, 나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완전하게 선포되게 하고, 모든 이방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다.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다. ¹⁸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의 공격에서 구해 내어 안전하게 당신의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.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빈다. 아멘.

인사

¹⁹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, 오네시보로 집안에 문안해 주어라. ²⁰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. 드로비모는 병이 나서 밀레투스에 남겨 두었다. ²¹서둘러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하여라.

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자매가 그대에게 문안한다.

²²주께서 그대의 영광 함께하시기를 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.

[§] 4:13 양피지 양가죽을 종이처럼 만들어, 그 위에 글씨를 썼다.